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

기도서 317면 (A해)
제1독서 : 신 명 8, 2-3. 14b-16a
제2독서 : I 고린 10, 16-17
복 음 : 요 한 6, 51-58

숨 정 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
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요한 6,54).

□ 강론



먹고 살기

이 병 호 신부

우리는 '산다'는 말 대신 흔히 '먹고 산다', 혹은 '해 먹고 산다'는 말을 쓴다. 그만큼 사는 일과 먹는 일은 떼어놓을 수가 없다. 그런 뜻에서 음식(빵)은 곧 생명이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 즉시 먹고 살 방도를 마련해 주셨고(창세 1,29 참조),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하여금 그날 그날 먹을 양식을 하느님 아버지께 청하도록 권고하셨다. 예수께서는 또 사람들이 허기져 있을 때 빵을 많이 하는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위기를 모면케도 해주셨다. 그런데, 사람은 이 빵과 그것으로 지탱되는 종류의 생명에만 정신이 팔려, 더욱 귀중한 빵과 더욱 참다운 생명이 있음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빵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태도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그 사실은 그분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 40일동안 사막에서 단식기도를 하신 후, 사탄으로부터 받으신 제일 첫 유혹 장면에서 이미 확실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오늘 제1독서에 나오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응수하신다. “성서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이후 예수의 삶 전체는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심어 주시기 위해 소모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분의 그런 노력은 지상생활이 끝날 때까지 끝내 성공하지 못하고 말았다. 오늘의 복음을 앞뒤로 싸고 있는 요한복음 6장의 나머지 부분은 이 사실을 증명한다. 빵을 많이 한 기적을 본 사람들은 인간에게 참으로 필요한 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야 했는데도, 그들은 물질적인 빵 그것에만 매달려 있었던 것이다.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26절). 그리고 오늘의 복음에 이어 나오는 부분에서는 참된 빵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못마땅히 여기는 제자들의 모습이 소개된다. “이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물러났으며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았다”(66절).

예수님의 생전에 이처럼 참혹한 실패로 끝나버린 일이 영웅하게 성공한 것은, 그분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빵을 나누어 먹던 순간이었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열렸던 것이다.

우리의 눈은 얼마나 열려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빵을 얼마나 다른 이들과 나누어 먹느냐에 달려 있다. 자기의 빵을 나눌 때, 우리는 비로소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 속박에서 풀려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 가톨릭대학)



카네이션과 장미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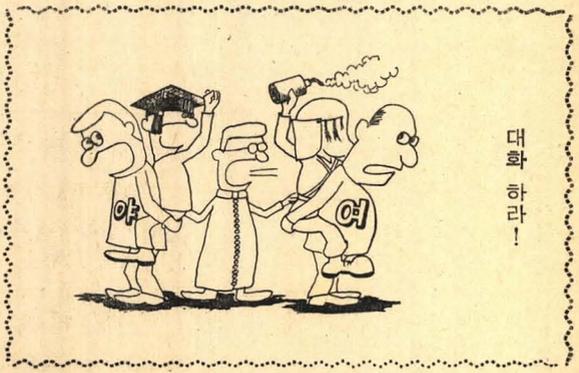
6월 10일 오후 6시경 전주 팔달로의 거리는 차량없는 “사람판”이 되었다. 잠시후 시위대열과 경찰병력이 맞선 가운데 경찰은 최루탄 발사를 예고했다. 이때에 가냘픈 여성의 목소리가 시민들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최루탄은 쏘지 마시다.” 시민들은 박수로 호응했다. 그래도 최루탄은 발사되었다. 시민들은 “쏘지마”라고 외치며 저항했으나, 결국은 최루탄에 밀리고 말았다.

최루가스는 “독가스의 하나”로 “눈물샘을 자극해서 눈물이 나오도록 하는 가스”라고 우리말 사전은 풀이한다. 그런데 실제로 그 맛은 그게 아니다. 누구라도 무방비 상태에서 그놈을 만나면 눈물과 재치기를 주체할 수 없고, 숨막힘과 살갓의 따가움을 어찌할 수가 없어 그냥 내뿔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사실 더 큰 문제는 최루탄으로 말미암아 이 한 열군의 경우와 같이 생명에 치명상을 입히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당국은 이제 최루탄 사용을 그만두어야 한다. 4·19의 폭발적인 도화선이 되었던 것도 최루탄을 맞은 김 주열군의 시체가 아니었던가!

이제 시민의식도 달라졌다. 최루탄에 쫓기는 젊은이들을 지켜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젊은이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하고 2천만원이 넘는 성금을 모아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최루탄을 쏘지 마세요”라는 리본과 함께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가? 같은 또래의 전경에게 장미꽃을 달아주며 최루탄을 쏘지 말라며 “수고했다”는 인사를 나누는 대학생들의 가슴속을 헤집고 흐르는 눈물의 의미를 아는가? 왜 우리는 친형제간이 쫓기고 쫓으며 최루탄과 물뿜이로 안부름 확인해야 하는가? 제발 최루탄을 쏘지 말자. 그리고 물뿜이도, 화염병도 던지지 말자. 명동성당의 교훈은 우리도 헤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숨 정 이 산책



대화하라!

□ 성모 성년 해설 II

성모성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사실 어떤 이들에게는 이번 성년이 마지막 성년이 될 것이다. 죄악에서 해방된 구원성년을 생각할 때에 죄의 노예상태에서 해방되는 삶을 지향해야 한다. 따라서 지나간 모든 죄의 통회는 물론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더욱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계획과 실천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성년의 교훈이 가르치는대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려고 해야 한다.

1) 개인적으로, 단계적으로 간절한 기도를 바쳐야 한다. 우리는 특히 전례적 기도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생활이 있어야 한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우리 서로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 된다.

하나님과 대화없는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해를 이루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다른 이들을 성화도 인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먼저 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도생활이 몸에 배야 한다. 가정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또한 로사리오 기도를 바치면서 성모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성년동안에 본당, 또는 단체, 그리고 각 가정은 성년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하면서 우리의 삶이 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성년동안 우리가 매일의 생활에서 오는 필요한 극기만 아니라 자발적인 보속의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적, 내적 회개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이 회개는 개인적 회개는 물론 단체적 회개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참회의 전례를 정기적으로 가지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다.

3) 이웃에 대한 애덕의 실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 우리가 단순히 기도 안에서 은총만을 받았다는 생각과 자기를 이기는 극기, 그리고 보속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는 애덕의 행위는 우리의 속죄도 될 뿐아니라 사람들에게 은총을 나누는 중대한 성년활동이 된다.

이러한 활동은 평소애 해야함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나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이웃 형제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구체적인 애덕을 실천하므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 자신의 내적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내가 가난하면서도 오히려 가난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새로이 창조해 나아가야 하겠다.

□ 우리 모두의 일

자치교구설정 50주년 기념사업 진척상황

1) 자치교구설정 50주년 기념의 절정을 이룰 기념대회가 10월 1일 전주 공설운동장에서 거행키로 결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여러 가지 기념행사가 계획되고 있다.

전국 각 교구장 초청과 우리 교구와 관계된 외국 손님들 뿐만 아니라 교구내의 손님들을 초청 기념미사와 더불어 기념식에 따른 각종 기념행사가 계획되고 있다. 특히 당일 기념영세식 거행이 계획되고 있는바, 각 본당별 당일 영세예정자를 선발, 지금부터 준비를 요망하고 있다. 교구민 전체의 축복 속에 뜻깊은 날에 영세를 받게됨으로써 잊지 못할 감동의 날이 될 것이다.

2) 50주년 기념행사 하나로 바자회가 열린다. 9월중 계획된 이 바자회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특히 우리 신앙생활에 유용한 생활용품을 개발하여 제작 시판할 계획이다. 50주년 중앙회에서 이미 각 본당 수녀, 자모회장 단 회의를 소집, 하루의 피정을 갖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적으로 주일미사 때 사용할 성서, 성물가방(남자용, 여자용)을 제작하고 또한 여름방학중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본당 어린이와 중·고생을 위한 50주년기념 T셔츠를 제작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각 본당에 견본을 보내 신청을 받도록 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 뿐 아니라 본당

내 중·고생들을 위해 많은 협조를 기대한다.

3) 우리들의 신앙적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유요한과 이누갈다 등정부부의 전기를 그린 연극이 계획되고 있다. 「어떤 사랑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공연 계획을 세우고 이미 각본이 완료되었고 신자들로 구성된 국내 유명 배우 및 TV탤런트들로 그 배역진을 선정,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교구 신자는 물론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로 계획된 이 연극제는 서울과 교구내에서 9월 중순경에 공연될 계획이다.

4) 자치교구설정 50주년의 기념을 보다 더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기념스티커 2종이 제작되어 금주내에 각 본당에서 배부된다. 차량이나 가정, 사무실 등의 적절한 곳에 부착하므로써 기념의 뜻을 보다 널리 알리는 데 활용하자.

5) 오는 6월 29일 가질 예정이었던 친호 피정의 집 축성식이 8월 31일로 연기되었다. 이는 본당 분담금 미수 등 공정이 늦어지고 있고, 어우리→친호간의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가 한창 진척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호 성지순례자는 당분간 여산→친호간의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착오없이 바라며 우리의 목적이 보다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 좀더 큰 정성으로 협조하자.

신도사무기상사
(주)신도리코 전주특약점
복사기·팩시밀리·마스타
인쇄기·윤전등사기·각종
사무기기 및 소모품일체
☎ 6-9666·84-3678
오 중 원(아오스딩)
이 정 운(안 젤 라)

고농종묘농약사
(구, 성모병원 상가)
농약·종자·농자재
염가 판매
전화 82-4040~1
82-8468
박 동 왕(요한)

**전북의료보험조합 지정
김안과 의원**
부설: 신세계 안경
국제콘택트렌즈
원장 김 호 열
전 은 주
(베로니카)
전주 코아백화점 옆
중앙성당 앞
전화 74-3020

**PUB 커피 레스토랑
바 티 칸**
약혼피로연·미팅·
연회석 완비
오거리 국민은행 뒤
장 요셉
박 베로니카
※ 대학가요제 출연멤버
(통키타)

교 구 소 식

- ☆ **축! 견진** : 서학동 천주교회, 28일 10시30분 미사, 주례-박정일 주교
 - 1. **사제연수회** : 23일(화) 오전 10시30분. 장소-가톨릭센터
 - 2. **노동자를 위한 월례미사** : 24일(수) 장소-가톨릭센터 3층 소성당
※ 노동자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3. **성소자 모임** : 28일(일) 오후 2시, 장소-가톨릭센터 3층 회의실
대상-중·고·대·일반 성소자
 - 4. **중·고 교리교사 여름 하계교리교재 강의실습 및 캠프 감습회**
일시-1987년 6월 27일~29일(2박 3일), 장소-화산천주교회
대상-중·고 교리교사 및 예비지도자
내용-①교리교재에 대해-우리 교구를 알자(교재 편찬) ②심성제발 ③메크레이션
④청소년에 대해, 회비-5개시 9천원, 그외 지역 8천원
준비물-세면·미사도구·운동화·수저·침낭·쌀 6끼니분
 - 5. **'87 대학생 지역대회** : 도보 성지순례
일시-1987. 7. 8(수)~11(토), 장소-순경이→초남이→나바위→여산→친호→순경이, 접수-각 단위대 가톨릭학생회
 - 6. **성서 피정안내** : 주제-생명의 말씀으로 산 마리아와 여인들
일시-1987. 7. 17 오전 9시40분~오후 10시, 장소-전동천주교회, 참가비-1천원
대상-모든 교우들(예비교우 환영)
강사-김치삼 신부님, 이인복 교수, 김발다살 회장
- ※ **축! 영명** : 성 알로이시오(21일) 이태주 신부님
성 요한세바(24일) 김봉희·왕수해·한기호·김요한 신부님. 축하합니다

「나라와 민주화를 위한 기도회」
일시 : 87년 6월 23일 오후 8시 장소 : 전동성당
교구 정의 평화 위원회

잡 관!

여기, 마을 흐רות한 일이-,

요즘 많은 도시 본당들이 알게 모르게 농촌본당 돕기에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특히 교구내 3개(진주·이리·군산) 도시본당들이 농촌본당 돕기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흐רות한 소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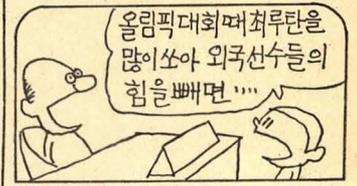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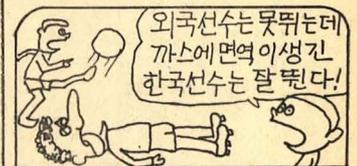
3개 도시에 소속된 본당들이 정성을 모아 농촌본당을 돕기로 했다는 것. 본당 자체 운영도 어려울텐데 농촌본당을 기꺼이 돕기로 나선 일이 여간 흐רות한 일이 아닐수 없다.

더욱이 배소라성서 연구원(원장: 김정원 신부)에서는 그동안 수류본당과 원평본당에 매월 3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고-, 그동안 감추어진 일이었지만 「말씀」을 실천으로 보이고 있다는 기쁜 이야기.

사실 복음선교의 유일한 수단은 일치다. 그 일치를 위해서 사랑이 필요하고 그 사랑의 표현은 곧 「나눔」이다. 특히 오늘의 교회는 복음화된 공동체로서 형제애와 가난으로 새신되도록 요청받고 있다. 가난과 애덕은 그리스도교회의 영광이며 표지(사묵헌 88)인 것이다. 이런 차제에 도시와 농촌간의 사목적 교류는 물론 경제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들은 분명 우리 교회의 성숙된 모습이다.

교구설정 50주년을 지내면서 보다 뜻깊고 보람되게 이 한해를 보내자는 노력이 이렇게 눈으로 보여질 때, 우리 교구에 하느님의 축복이 없으리 없다. 형제애적인 나눔에 마음을 같이 하며 우리 모두, 교구의 보다 더 큰 내적발전을 빌자.

요심이 (724) 김병오



1분 명상

자기를 아는 사람은 유능한 할해자다.

-슈바이처

명동피부과의원

전북의료보험조합 지정 소흥영외과의원

물리치료실 부설
외과전문의
소 흥 영 (요 한)
유 인 결 (유리안나)
전주시 서노송동 602-21 (전주시청 앞)
병원 85-3668
자택 85-8120

한국 외방 선교 수녀회 제2차 지망자모집

젊은 여성들이여, 세계 복음화를 목적인 본 수녀원에 많이 오시라, 세계 교회는 여러분을 기다린다.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하겠습니다.

※연락처 : 601,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1동 878-6
한국 외방 선교 수녀회

원장 이 마리오셉 수녀 전화 (051)67-8237
혹은 최 재선 주교 전화 (051)623-2386

황수경 산부인과의원

여 의 사 황 수 경
산부인과전문의의 환 수 경
(크리스티나)

이 승 열 (엘리아)

울 전 주 84-7272
관동로 서울신탁은행건너편 골목

북 전주지구 본당소식

(중암)

사제관 5-1713 주임신부 성민호
사무실 5-1711 보좌신부 윤양호
수·유 5-1712 사목회장 엄이도

- ☆ 축! 본당 주보축일: 예수성심대축일(26일)
본당을 위하여 많은 기도와 희생 바랍니다
☆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입니다
☆ 반미사안내: 24일 오후 8시, 8반-정혜경(3-4937)
1. 본당신자 및 레지오단원 성지순례: 오늘, 여산·미리내 ※ 오늘 본당 미사시간은 변동없습니다
2. 민주개헌을 위한 서명운동: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남북통일 기원미사: 25일(목) 침묵의 교회를 위한 미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4. 모임: 성심부녀회-26일(금) 어머니미사 후 청년연합회-27일(토) 오후 5시 재속형제회-28일(다음주일) 오후 2시
5. 견진사진: 사무실에서 찾으세요(2천원)
6. 성체회: 지속적인 성체조배에 빠짐없이 참여합니다
7. 교구 50주년 기념사업 및 본당 30주년 기념사업
○신입 및 헌금납부에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1,190,900원 교무금: 749,500원

(동산)

사제관 74-4614 주임신부 권이복
사무실 76-1289 사목회장 한상갑

- ◎ 오늘 중으로 수녀원 신축헌금 신임을 합니다
◎ 미사예물을 접수합니다
◎ 매주 공식미사 후: 사목회의
1. 예비자교리: 성인-목요일 8시30분 중·고생-토요일 6시
2. 금주 구역모임: 화·금요일 오후 8시30분
23일: 화전리·동4구, 협조자-육문용·김택천
24일: 나눔잔치-화전리
26일: 동5구, 협조자-김남규
3. 모임안내: 꾸리아 회의-오늘 공식미사 후 2시 모이교회·애덕회-차주 공식미사 후 구역장회의-25일 오후 8시30분
4. 본당청소: 매괴의 모후
5. 수녀님 가정방문: 가난한이의 어머니
6. 금주전례: 해설-김택천, 독서-①김병만 ②문정순
차주전례: 해설-최정진, 독서-①신영우 ②김영원
□ 지난주 봉헌금: 221,810원 교무금: 56,000원
나눔의날 헌금: 25,670원

(금암)

사제관 3-1653 주임신부 오현택
사무실 사목회장 소완영
수녀원 76-0961

- 1. 오늘은 선교주간: 꾸리아 회의-오후 2시
2. 반장님 회의: 공식미사 후
3. 차주는 교황주일입니다: 특별헌금 있음
4. 차주는 애령주일: 기도회 있음(2차헌금 있음)
5. 6월 형제회: 25일 저녁 8시
6. 안나회 월례회: 25일 오전 10시
7. 예비자모집: 특별예비자-50주년 기념영세반(26일 밤 8시30분 시작) 성탄절반-7월 12일 공식미사 일교식
8. 예수 성심미사: 30일 저녁 9시30분
9. 금성회·금암회 월례회: 차주 공식미사 후
10. 감사: 신축헌금 유영희-2만원, 영세자 기념선물-성함 1점, 오재열 부부-제의 1벌
11. 금주봉사: 이창성·박희정 차주: 윤기환·최장수
12. 금주봉헌: 김원호 부부 차주: 최용인 부부
□ 지난주 봉헌금: 514,720원 교무금: 60,000원
신축헌금: 20,000원

(순정이)

사제관 76-1320 주임신부 나궁열
사무실 3-7366 사목회장 박해근
수녀원 3-9567

- 1. 성령세미나: 23일-26일 오후 8시-11시 많은 참석 바랍니다
2. 꾸리아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교구 사목방문: 24일 오후 2시
4. 유아세례·병자봉성체: 27일, 사무실에 신청바람
5. 제대회: 27일 오전 10시
6. 중·고 교리교사 하계연수회: 27-29일, 화산성당
7. 북전주지구 중·고등부 교리교사 6월 월례회
오늘 오후 3시, 본당에서
8. 원장수녀님 피정마쳤습니다
9. 성전정화사업 헌금납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금주 성당성소: 화-하늘의문, 토-증거자의 모후
11. 미사안내: 매괴의 모후
12. 금주전례: 해설-강원모, 독서-기도-박영근·강정진
봉헌기도-이청수·김지자
차주전례: 해설-강원모, 독서-기도-유춘웅·윤덕남
봉헌기도-은규삼·김유자
□ 지난주 봉헌금: 430,925원 교무금: 283,200원

(덕진)

사제관 72-6107 주임신부 김동희
사무실 3-2182 보좌신부 최상범
수·유 72-1222 사목회장 김낙현

- 1. 송천성당 대거회(40~50대 성인남자) 결성 발족(14일): 회장-이장렬, 부회장-장무성, 총무-김용수
2. 오늘의 모임: L·M 꾸리아-오후 2시 (진복유치원)
※ 송천동팀 분리 협의하오니 평의원 전원 참석바람
반석회 모임-공식미사 후(사목회의실)
성모회-공식미사 후(2층 회의실)
※ 공식미사후 송천동에 사시는 신자분들 모두 남아주세요
3. 어머니성가대·청년성가대 회원 모집합니다
축성식 성가연습을 위해 보다 많은분 기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본당신부님 축일(세자요한): 24일 오전 10시 미사, 11시-축하 한마당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5. 만나회(직장여성 모임): 24일 저녁미사 후
6. 유아세례: 다음주(28일) 아동미사 후(4시)
사무실에 미리 신청바랍니다
7. 송천성전 준공이 가까웠습니다: 7월 17일 축성예정
신입총액-188,354,840원(18개 pr 9,261,000원)
납입총액: 155,240,469원
8. 교무금 봉헌에 적극 협조바랍니다
9. 금주 본당청소: 애덕의 모후 pr-27일 오후 2시
□ 지난주 봉헌금: 709,200원 교무금: 411,000원

(인후동)

사제관 74-1929 주임신부 서용복
사무실 75-6389 사목회장 김병문
수녀원 75-6389

- 1. 주일미사에 꼭 참석합니다(168시간)
2. 교리교사 모집합니다: 초·중등부 교사
김수녀님께 신청바랍니다
3. 미사예물 접수: 수녀님·사무장에게
4. 교무금과 신축헌금 신임하고 납부하세요
5. 영세식: 28일 오후 7시30분
6. 미사 때 매일미사책과 성가집은 꼭 지참하세요
7. 모임: 만나회-오늘 공식미사 후 (할머니들의 모임)
자모회-25일 어머니미사 후
꾸리아-28일 오후 2시
8. 성전건축을 위한 건조대 판매에 많은 협조바랍니다
9. 본당신부님 영명축일: 7월 3일, 축하미사-오전 10시
저녁미사 없음, 예물과 기도드립니다
10. 금주전례: 해설-최명자, 봉헌-한강용 부부
독서 및 기도-①박창윤 ②정순자
안내-함권술·이진호
차주전례: 해설-안남근, 봉헌-이병호 부부
독서 및 기도-①채수원 ②임진섭
안내-이순영·정수원
□ 지난주 봉헌금: 441,270원